■ 결사추진본부 자문위 5차 회의, 어떤 논의했나

"집행부 임기 따라 쇄신결사 좌우되면 안된다"

선·교·율을 대표하는 원로 스님과 중진 스님들로 구성돼 종단 쇄신 관련 기조와 종책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인 결사추진본부 자문위원회는 지난 11일 5차 회의를 열고 쇄신의 방향과 종단 현안을 논의했다. 의식개혁 운동 추진과 지속가능한 쇄신결사 전개, 총림법 종회상정 보류 요청 등으로 압축되는 이번 자문위 회의에서의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결사추진본부 자문위원회는 종단 쇄신 결사의 기조와 종책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다. 사진은 지난 11일 문경 봉암사에서 열린 자문위 5차 회의 참석자들 기념촬영 모습.

△의식개혁 안되면 모두 안돼

이번 자문위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사부대중 의식개혁'의 기조를 추인하고 본격적인 집행을 결의한 것이다. 의식개혁은 쇄신 결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꼽혔다. 법제도가 완비되더라도 이를 지키고 끌어갈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미완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작용된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회의에서는 의식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문위원들의 발언이 쏟아졌다. 충주 석종사 선원장 혜국스님은 "의식개혁이 안되면 모든 것이 안된다"며 "의식개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의식개혁에 대한 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자문위는 지난해 9월 열린 4차 회의에서 사부대중 의식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의식개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식개혁소위는 여러 차례 회의와 좌담회 등을 거쳐 '중도·인불사상을 바탕으로 한 구세대비 실천'이라는 방향과 내용을 도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 의식개혁의 기조로 최종 의결된 것이 '중도의 눈으로 본 본래(사람)부처와 동체대비론'이다. 이번 기조는 뭇 생명의 안락과 행복 실현이라는 부처님의 사상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새로운 대승불교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21세기 현 시대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중도의 눈, 즉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중생이 본래 부처이자 사람이 그대로 부처다. 이같은 신대승불교의 불교관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에서 즉각 중도로 본 본래부처의 동체대비심으로 고통 받는 본래부처, 사람부처를 구제하는 실천과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식개혁의 핵심이다.

이날 자문위가 의식개혁의 기조를 추인하고 전개방향에 대한 전권을 결사추진본부에 위임함에 따라 의식개혁운동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린다. 의식개혁운동은 교재 편찬으로 시작된다. 의식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끈 원로의원 고우스님을 중심으로 교재가 만들어진다. 이번 운동은 사부대중, 나아가 일반대중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4차 회의서
'중도·인불사상' 바탕
'구세대비 실천'

방향 도출

종단상황 구애받지 않고
쇄신결사 완성시키는 것이
한국불교 희망 꽃피우는 길

집행부 마무리와 출발을
사부대중과 국민들에게
공감과 희망을 갖게 하는
멋진 문화로 가꿔야 한다

공감대 '형성'

고우스님 중심 '교재' 편찬
종단 구성원과 스님들 먼저
교육 받은 후 사회로 확산…

신뢰 그리고 탄력

때문에 사부대중이 중도와 본래부처, 동체대비행의 사상과 정신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참선이나 염불, 교학, 율학 등의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 또 일반시민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을 현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결사추진본부는 현대적인 감각이 뛰어난 불교학자에게 저술을 맡길 예정이다.

교재가 발간되면 우선 중앙종무기관을 시작으로 전 종도에게 교육시킬 계획이다. 원로의원 고우스님은 "종단 구성원과 스님들이 먼저 교육을 받은 후 이를 사회로 확산시켜나가면 갈등과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동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모든 종도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추고 열심히 전개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덧붙여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은 교재와 교육에 있어 근본 불교 가르침의 전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적명스님은 자신의 법문에 대해 팔리어 경전을 언급하며 비판한 수많은 인터넷 댓글의 사례를 들며 "남방불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대단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스님은 "대승불교의 본래부처는 초기불전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정확히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중도와 본래부처의 뜻을 부처님 육성과 연결해 제시하지 못하면 의식 있고 신심 깊은 젊은 불자들에게 외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대승불교가 불교가 아니라는 의심을 사게 된다는 우려다.

△쇄신결사는 종단차원 특별불사

종단차원의 쇄신 결사가 차근차근 진행되며 일정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즈음, 사부대중의 걱정이 있다. 쇄신결사가 지속가능하겠냐는 의문이다. 종단차원의 최초의 결사라는 의미는 크지만 그에 반해 총무원 등 종단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단점이 있다. 현재 종단 집행부는 쇄신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차기 집행부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보장은 없다. 올해 총무원장 선거가 있는 정치 국면에서 우려는 더욱 크다. 이같은 걱정은 이미 지난 2월 열린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돌출됐다. 운영위원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자성과 쇄신 결사는 중도에 멈추어선 안 된다"며 종단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종단에 건의하자는데 동의했다. 종단 원로 스님들도 마찬가지였다. 자문위 5차 회의에서도 쇄신 결사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자문위원 스님들은 "집행부 교체기에 닥쳐 의식개혁, 법제도 개선 등 가열 차게 추진되고 있는 종단의 쇄신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종도들의 우려가 많다"며 "종단의 정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쇄신 결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한국불교의 희망을 꽃피우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재 총무원장 스님이 쇄신 결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차기 집행부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총무원장 스님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쇄신 결사를 종단차원의 '특별 불사'로 규정한 자문위원 스님들은 "종단의 어제와 오늘, 내일의 관점에서 성찰과 진단, 전망을 토대로 특별불사를 함으로써 신구 집행부의 마무리와 출발이 사부대중과 국민들에게 공감과 희망을 갖게 하는 멋진 선례와 문화로 가꿔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총림법, 근본 의미부터 짚어야

종단쇄신위가 내놓은 총림법 개정안은 '교구총림제'로 특징된다. 교구본사 한 곳이 총림을 관할하지 않고 교구 내 분산 배치해 총림의 위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회가 실질적인 총림 운영기구로서 교구전반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확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임회가 총림 주지를 복수 선출해 방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법안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자문위 회의는 총림법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돼야 하며, 시간에 쫓겨 처리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은 총림의 본래 의미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명스님은 "총림은 선원이 중심이 돼 강원과 율원 등 여러 공부방편이 있는 교육공간이었다"며 "수행도량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대안이 총림법에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본래 뜻을 찾기 위해서는 교구본사와 총림이 분리돼야 한다"며 "교구를 대표하는 선원이 규모와 인원에서 종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총림으로 지정해 종단이나 교구본사가 지원하면 될 것"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현재의 총림 위상을 대폭 축소해 종단과 지역을 대표하는 수행도량으로서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자문위원 스님들도 총림이 본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여러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번 개정안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시위원장 지안스님은 "현재 추세라면 대부분 교구본사가 총림이 될 텐데, 종합수행도량이라는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사격을 높이고 행정권한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사추진본부가 오히려 총림 지정을 반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되물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성문스님(동화사 주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총림법은 문제가 많다"며 "총림법 개정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결론적으로 총림 문제는 대중공의 절차 없이 방장이 본사주지 추천권을 전횡해 벌어지는 폐해와 출가자가 줄어드는 세태에서 총림 유지가 가능할지 여부, 문중의 이해관계로 인해 명망 있는 스님을 방장으로 추대하지 못하는 현실 등 복합적인 상황이 얽혀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차분히 문제를 풀어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림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스님은 "청취한 고견을 바탕으로 이번 종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종도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는 총림법에 대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와 총림에 소속된 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등이 함께 모여 봉암사에서 워크숍을 갖자고 제안했다.

문경=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승가대학 신입생 입방공고

◐모 집 기 간 • 1차 방부 : 2013년 3월 27일(水) 까지
• 2차 방부 : 2013년 3월 30일(土) 까지

◐입방 구비 서류
1) 승적 증명서 1부(또는, 수계증명서·교육필증 사본 각 1부)
2) 은사스님 추천서 1부
3) 건강진단서 1부
4) 반명함 사진 3매(만의 장삼 수하고 찍은 사진)
5) 방부비, 도장(법명)

◐편입 방부자 O명(전학중 추가)

◐문 의 (061)755-5302

曹溪叢林 講院 講主 無門道岩

僧寶宗刹 曹溪叢林 松廣寺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www.songgwangsa.org